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701-01

韓國의 寺址

현황조사 보고서

전라북도

2016
上



일러두기

- 01 본 보고서는 전라북도, 강원도 지역 내 寺址의 2016년도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본 조사는 2013년도에 실시된 조사에 이은 2차 조사이다.
- 02 각 사지의 유형은 현황을 근거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1유형 : 국가·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지(사적, 사·도 기념물, 사·도 문화재자료 등)
2유형 : 사지의 근거가 되는 유구, 유물 등이 있으며, 지정 소재문화재(사지 내 소재, 위치 이동)가 유존하는 비지정 사지.
3유형 : 사지의 근거가 되는 유구, 유물, 비지정 소재문화재 등이 있는 비지정 사지.
4유형 : 사지로 보고되었지만 특정 원인으로 인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비지정 사지.
기 타 : 현장조사 결과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곳.

- 03 본 보고서는 총 2권으로 분권하였다. 상권에는 전라북도, 하권에는 강원도 지역 사지 현황보고서와 부록을 수록하였다. 각 사군, 사지명의 정렬은 가나다순이다.
- 04 각 보고서는 사지 위치 정보, 지정사항, 연혁, 유적현황, 조사조건, 조사결과표로 구성하였다. 유적의 범위가 확인되는 1, 2, 3유형 사지는 유적 현황도를 제시하며, 4유형 사지는 현황도를 수록하지 않았다. 기타 사지는 별도의 표에 기록하였다.
- 05 부록은 하권 말미에 제시되어 있으며, 총 3장으로 구성하였다. 부록 I 은 전라북도·강원도 지역 사지의 유형별 현황과 통계 등, 부록 II 는 2013·2016년에 간행된 『한국의 사지』 전라북도·강원도 사지 색인, 부록 III 은 2016년도 조사 대상지 이외 지역의 신규 제보 사지인 경상남도 하동 범왕리암자지 1·2, 합천 치인리사지4의 현황보고서이다.
- 06 사지 명칭은 寺名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法定地名으로 표기하였다. 명칭이 동일한 경우 말미에 번호를 부여하며, 암자지의 경우 가급적 명칭 앞에 本寺名을 명기하였다.
- 07 지정 소재문화재 명칭은 문화재청 등록 명칭에 따랐다. 또한 유적현황도와 조사결과표에 기재하는 소재문화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표기하였다.
- 08 현장조사 시 중요도가 높은 유물은 수습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실측·탁본하여 도면을 제시하였다. 각 도면의 축척은 별도 표기하였다.
- 09 조사결과표에 기록한 식생유구영향도, 전체 유구상태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생유구영향도 |

- 높음 : 유구 전반이 식생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구가 영향 받는 경우
- 보통 : 유구 전반이 식생과 관련된 지형적 원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유구가 영향 받는 경우
- 낮음 : 유구 전반에 식생이 분포되어 있으나 작·간접적으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유구 전반에 식생 군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체유구상태 |

- 양호 : 유구 잔존 상태가 양호하여 사역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 보통 : 유구가 일부 잔존하여 원형 추정은 가능하나 전체적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 불량 :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유구가 훼손되어 원형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 10 보고서 내 수록 지형도는 (주)ilmsoft가 제조하여 SKtelecom에서 공급하는 Geovision 랜드맵 Professional(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2010-019호)의 자료를 편집한 것이며, 도면 내 별도의 방위표가 없는 한 圖北을 기본으로 한다.
- 11 조사구역 좌표 측량은 WGS84계로 운용되는 Garmin社의 Oregon300과 Oregon550, MiTAC Digital社의 Magellan Explorist610을 이용하였다.

협조기관 ※ 가나다순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고고문화연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국립춘천박물관, 남원시청, 남원시 시설사업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양양군청, 왕궁리유적전시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원주역사박물관, 익산시청, 전북대학교 박물관, 정읍시청, 한림대학교 박물관, 한빛문화재연구원, 홍천군청

전라북도

고창군	上 · 009
군산시	上 · 031
남원시	上 · 045
무주군	上 · 123
부안군	上 · 141
순창군	上 · 159
완주군	上 · 171
익산시	上 · 197
임실군	上 · 257
장수군	上 · 305
전주시	上 · 317
정읍시	上 · 337
진안군	上 · 379

조사개요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문화재보호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에 산포하는 폐사지 현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보존·관리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사지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차 조사, 2013년도 울산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전라북도 1차 조사, 2014년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1차 조사, 2015년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2차 조사의 순서로 연차 진행되었다. 2016년도 조사는 2013년도에 이어 전라북도·강원도 지역의 2차 조사로 진행되었다.

2016년도 전라북도·강원도 지역 조사대상 사지는 2013년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 보류되었던 사지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50여개소를 선정하였다. 전국 사지 분포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10년 작성한 『한국사지총람』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지역에는 441개소, 강원도 지역에는 379개소의 사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2013년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181개소, 강원도 164개소 사지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121개소, 강원도 110개소의 사지 현황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전라북도 302개소, 강원도 274개소 사지의 현황 정보가 축적될 수 있었다.

현장조사는 위치 및 유물 산포범위 확인 등의 지표조사로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수기로 기록하였으며, 소재문화재가 있는 경우는 간략한 실측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유구가 남아 있는 사지는 식생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환경에 의한 유구의 훼손 현황을 별도 기록하였다. 또한 GPS 정보 수집, 디지털 촬영,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고급적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중요 사지·소재문화재는 전문작가가 사진을 촬영하여 정보의 질을 높였다. 그리고 사지에서 이동된 소재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장처의 허가 하에 별도의 조사·촬영을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보고되었던 각종 조사 정보, 관찬·사찬 지리지를 포함한 각종 문헌, 일제강점기 조사자료, 최신 조사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개별 사지의 연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사지의 현황, 산포유물, 소재문화재 등의 정보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였고, 사지 현황의 요약,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범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번이 명기된 도면에 위치와 범위를 표시하고, 소재문화재의 위치 정보도 함께 표기하였다. 별도의 표에는 이상의 정보를 요약·정리하고 사지가 포함된 부지의 지번 및 소유 정보를 간략하게 표기하였다. 이외에도 현장조사 결과 현황을 도출할 수 없었던 사지 역시 별도의 표에 기록하였다.

2016년도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조사단은 본 연구소를 주축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조사단 및 자문위원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

문영빈(전 문화재위원)
김봉건(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장용철(안양대학교 교수)
최응천(동국대학교 교수)
양정석(수원대학교 교수)
김철주(문화재청 전문위원)
손영문(문화재청 전문위원)

행정지원

김계식(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과장)
이동순(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무관)
임은경(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주무관)

조사단장

제 정(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책임조사원

임석규(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

조사원

이현수, 박영민(이상 유적연구실 팀장)
안선우, 이소연, 이재우, 유명우, 박지영(이상 유적연구실 연구원)
한옥빈(전 유적연구실 팀장)
조민수, 박광현, 차인성(이상 전 유적연구실 연구원)

조사보조원

윤선아(유적연구실 연구원)
홍승인(전 유적연구실 연구원)

전문사진촬영

이정훈(i studio 대표)

마지막으로, 조사에 도움을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읍 내장사, 평창 월정사, 전주 미륵암, 영월 흥법사, 남원 귀정사 주지 스님, 이홍식님, 임병기님, 완주 보성사지 발견 “보성사창건비”를 판독·번역해 주신 홍선 스님께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